

권력순환과 국가생존 전략

“

국가생존을 위한 권력순환적 접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
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핵심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경 환
(032)860-7735

1. 사회적 에너지로서 권력

사회과학의 초점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생존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여, 사회적 주체들로 하여금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예로서 경제학은 긍정적인 경제질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소비자, 투자자 및 노동자와 같은 국가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경쟁과 협력의 경제적 행동을 유발하게 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사회학은 주어진 사회에서 긍정적인 사회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발하게 함으로

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사회 주체들의 행동이나 이들간의 생존질서는 권력(power)에 관계된다. 예로서 Weber(1947)는 권력은 상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이라고 한다. Dahl(1957)은 권력을 사회적 주체가 반대를 극복하는 능력(capacity)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A가 B에 행사하는 권력이란 A의 개입이 없다면 B가 하지 않게 될 것을 B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한다. Bartlett(1989)은 사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권력이 아니라 권력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은 인간이나 사회주체의 행동

을 유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oucault(1992)는 권력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운영의 체계적 집합(a systematic set of operations)라고 한다. Habermas(1984)는 권력은 사회적 갈등의 조정수단이라고 한다. Baum(1989)은 권력은 개인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결합하여 함께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Frost(1987)는 협력은 갈등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포함하며, 이러한 협력 형태는 시스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계되며, 지배를 위한 권력보다 조화를 위한 권력(power 'to' rather than power 'over')을 포함한다고 한다. 권력은 혁신을 야기한다(Kanter, 1983). 권력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힘이다(Clegg, 1989). 권력은 전력적 변화에 결정적인 변수이다(Hardy, 1995). 따라서 권력은 질서 속에 사회 변화를 유발하고, 혁신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thschild(1971)은 광의의 권력은 A의 의도나 B의 고통에 무관하게 A가 B에 미치는 모든 인과적 영향력을 의미하며, 협의의 권력은 특정 영역에서 A가 B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광의의 권력 개념과 협의의 권력 개념 사이에 있는 인간 관계의 의도, 형태, 범위의 결합의 모든 유형(all sort of combination of intention, form, and scope of interpersonal relation)은 권력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는 행사된 권력뿐만 아니라 자발적 행동 적응을 야기하는 권력의 소유를 포함한다.

Clegg(1989)에 의하면 권력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존재한다고 하며, Toffler(1991)는 권력은 가장 근본적인 사회현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본질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권력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며 남녀관계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은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모든 부분에 작용한다. 예로서 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사회적 및 정치적 생활로 보고 있는 측면과, 분업과 분권화된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징되는 자유시장의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과학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Adam Smith의 국부론의 이러한 측면은 고전학과(classical school)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로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어진다. 개인적 및 집단적 동기로서뿐만 아니라 분배문제(distributional matter)에서 권력현상은 결코 부정되어질 수 없다.

Marglin(1974)은 기업 특성은 능력이 아니라 권력에 관계되며 기업의 생존은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의 통제 정도와 범위확장 능력에 관계된다고 한다. 기업은 비용절감의 능력보다 권력의 제도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한다. Screpanti(1994)에 의하면 대부분의 집단적 주체(collective agents)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개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라틴어로 권력은 potis이다. 고대 프랑스어로 권력은 poeir이며, 중세 영어에서는 pouer인데, 이러한 용어는 모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being able to do something)에 관계되어 있다. 에너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권력은 인간관계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권력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에너지이다.

사회적 에너지인 권력은 주어진 사회의 생존질

서를 창출하고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사회수체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하여 사회변화와 혁신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분야에 작용하는 권력의 유형이나 특성이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권력공간으로서 사회

인간은 영(sprit)과 혼(soul)과 육(body)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영은 생명력(living power)에 관계된다. 생명력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천부적인 것이며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생명력은 추상적 개념을 가시화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개념을 가시화할 때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의 혼은 知(knowledge), 情(feeling) 및 義(justice)에 관계되어 있다. 지는 학습과 지식에 관계되며, 정은 회로에 락과 같은 감정에 관계되고, 의는 옳고 그름에 관계한다. 이러한 인간의 혼은 주로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세계에 관계되어 인간의 생존력(survival power)을 형성한다. 예로서 '학습 능력이 높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력이 높게 나타난다. 인간의 생존력은 지, 정, 의에 의해서 창출된 살기 위한 정신적인 에너지이나 의지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육은 생존본능에 관계된다. 본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하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생물학적 명령이나 강한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예로서 인간의 성적본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후손을 낳게 하여 인간의 삶을 영속적으로

가능케 한다. 따라서 생존본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앞 절에서 우리는 권력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은 인간의 내부적 및 외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권력에 속한다. 생명력은 인간의 영에 관련된 비가시적 권력(invisible power)이며, 생존력은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에 속한 가시적 권력(visible power)으로 나타난다. 생존 본능은 인간의 육체적 생존에 관련된 생물학적 권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생존은 인간의 영, 혼, 육에 각각 관계된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 인간의 몸은 이러한 세가지의 힘에 근거한 영적 또는 마음이나 정신세계가 가시화된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이다.

인간의 건강은 혼과 영과 육의 동시적 건강을 말한다. 인간을 형성하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인간은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없다. 인간을 형성하는 영, 혼, 육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변화할 경우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이는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인간의 육체에 병이 있을 경우 이는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 혼, 육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어 상대의 활동을 강화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인간을 형성하는 영과 혼과 육은 동적 상호작용 관계에 있으며 이들 간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느 하나가 약할 경우 다른 하나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동적균형을 유발한다. 이러한 동적균형은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 예로서 몸이 아픈 사람이 강한 생존력을 가질 때 몸의

병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과 혼과 육은 에너지나 힘으로서 권력의 다른 형태를 의미한다.

사회는 인간이 만든 권력공간이다. 인간이 영과 혼과 육에 의한 생명력, 생존력 및 생존본능으로 구성되었듯이 인간이 만든 사회도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으로 구성된다.

사회공간에서 비가시적 권력은 부형적 자원을 권력요소(power element)로 한 권력을 의미한다. 예로서 도덕, 윤리, 전통, 믿음, 사상, 이념, 문화와 같은 부형적 자원은 부의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비가시적 권력을 창출한다. 예로서 비가시적 권력요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관계나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관계와 같은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의도되지 않은 자생적 산출물이다. 비가시적 권력은 사회의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s)를 형성하므로 이는 사회의 생명력의 역할을 한다.

가시적 권력은 제도, 규칙 및 성문화된 법률과 같은 유형적 자원을 권력요소로 한 권력을 의미한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적 자원은 의식적으로, 명시적으로, 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가시적 권력요소라고 한다. 가시적 권력요소는 흔히 의도적으로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가시적 권력요소에 기초해서 설계되어진다.

예로서 Peterson(1988)은 모든 사회는 제도를 가치와 문화로부터 획득한다고 한다. Neale(1998)은 제도의 변화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방법이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난다고 하고, 제도 변화는 흔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응이나 다른 문화의 접촉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특정의 경제적 제도가 유지될 것인가 또는 거부될 것인가는 보편화된 가치나 믿음에 의존한다고 하며

(North, 1990), 제도적 규칙의 설계원칙은 문화적, 정치적 시스템에 있다고 한다(Hayek, 1967). 계획되고 의도된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가시적 권력은 사회의 생존력을 의미한다.

비가시적 권력과 가시적 권력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권력은 비가시적 권력과 가시적 권력의 연속선상의 어느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특정 권력은 부분적으로는 비가시적이며, 부분적으로는 가시적일 수도 있다.

경제적 권력(economic power)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권력요소로 하여 창출된 권력을 의미한다. Takata(1995)는 경제적 권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유형의 경제적 재화를 양도하거나 교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제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재화에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욕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Toffler(1991)는 부(wealth)는 다양한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유연한 권력수단 이라고 한다. 경제적 권력요소는 주로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기여하므로 사회의 생존본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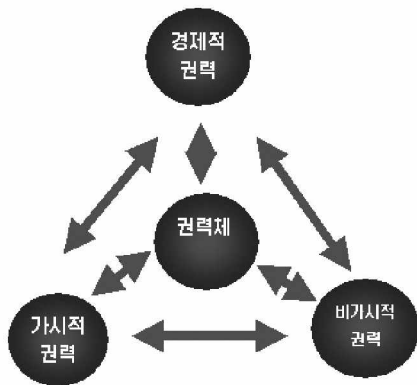
영, 혼, 육의 건강이 인간의 건강을 의미 하듯이 한 사회의 건강성은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의 건강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사회를 형성하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사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가지 권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비가시적 권력이다. 비가시적 권력은 사회의 생명력으로서 사회의 생존력(가시적 권력)과 사회의 생존본능(경제적 권력)을 창출하는 근원적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형성하는 영과 혼과 육이 동적 상호작용

하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도 동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로서 기업은 경제 주체로서 그들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기술이나 재화와 같은 경제적 권력을 창출한다. 기업이 창출한 이러한 권력은 권력공간에 존재하는 권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은 자유시장, 문화 또는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시장 메카니즘을, 제도주의자들은 제도나 문화로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장 메카니즘이나 문화는 비가시적 권력이며 제도는 가시적인 권력이다. 그러므로 경제 발전은 그 접근 방법이 상이할 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권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공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권력과 인간을 포함하는 권력주체와의 관계를 그림<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권력과 권력체의 행동



자료원: 이경환, 국가생존전략, 두남 2001

〈그림 2-1〉의 권력공간과 권력체의 행동모형에서 권력체는 개인, 집단, 조직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권력행사에서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객체가 된다.

권력체들은 권력행사를 위해서 비가시적, 가시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권력의 본질은 활동성(activity)이다. 권력공간에서 비활동적인 권력은 소멸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권력공간에서 권력들은 상호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생성, 성장 및 소멸을 포함한 권력변환을 유발한다. 권력의 이러한 변환은 새로운 생존질서의 창출을 야기할 수 있다. 예로서 새로운 제도의 탄생은 사회로 하여금 제도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

권력은 사회의 에너지로서 사회의 생존질서를 창출하고 변화의 원천이다. 사회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에너지인 권력의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전략은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과 인간을 포함한 사회주체들의 상호작용관계에서 논의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권력순환과 생존전략

우주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힘의 시공간이다. 우주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힘은 순환하고 있다. 예로서 에너지 방정식 $E=mc^2$ (E 는 에너지, m 은 질량, c 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은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 방정식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나 에너지는 순환을 통해 특성 에너지나 물질의 탄생, 소멸을 포함하여 다른 에너지나 물질로 변환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연계에서 물의 위치에너지가 낙하하여 운동에너지로 변화하고, 유기체내에서 화학적 변화에 의한 열에너지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에너지로 변화하며 순환하듯이 에너지는 그 형태는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고 있다.

우주의 에너지나 물질이 순환하듯 사회의 시공간

을 구성하는 권력이나 권력체도 순환하며, 권력이나 권력체의 소멸과 탄생 및 새로운 권력으로의 변환을 유발한다. 예로서 역사에서 한 왕조의 몰락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의미한다. 한 정권의 퇴진은 새로운 정권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사상은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새로운 지배적 제도의 등장은 기존의 제도를 쇠퇴시키며, 한 산업의 쇠퇴는 새로운 지배적 산업의 탄생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 기업의 성장은 다른 기업의 쇠퇴를 맞게 할 수도 있다. 경제적 권력은 가시적 권력인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교환될 수도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Toffler(1991)는 인간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권력관계도 끊임없는 변화과정에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계급, 인정, 성, 직업, 국가 등 여러 사회적 집단들의 관계는 인구, 생태, 기술,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이러한 변화들이 분쟁을 일으켜 권력자원의 재분배로 옮겨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권력은 생성과 소멸을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생성과 소멸은 생존질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권력은 활동성(activity)이므로 권력공간에서 권력들 간에 정적 균형(static equilibrium)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에 있다. 권력의 순환에서 하나의 권력이 변화하면 다른 권력도 변화하여 새로운 동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예로서 조직에서 비공식 조직이 커질 경우 조직은 공식적 조직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수준에서 종교적 권력이 강조되면 정부나 국가는 권력확대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 간의 새로운 동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권력의 이러한 동적균형은 단순히 권력의 성장을

통해서 권력의 양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질적변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의 질적 균형을 형성한다. 권력의 질적 변환은 주로 욕구와 가치 및 권력요소의 변화에 주로 관계되고 있다. 예로서 Maslow(1943)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낮은 수준의 생리적 욕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의 욕구로 옮겨간다고 한다. 권력형성에서 욕구 수준의 변화는 권력의 질적 변환을 의미한다. 권력의 질적 변환은 권력주체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계된다. 권력의 동적균형은 권력의 양적균형과 질적균형을 포함한다.

Toffler(1991)는 이러한 측면에서 권력의 평등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설사 그 같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연히 즉각 새로운 불평등을 조성하게 된다. 권력순환에서 이러한 권력의 동적균형은 바람직한 최종상태를 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변화 지향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권력순환에서 권력 간에 정적균형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권력의 정적균형이 일어나더라도 권력의 순환운동은 이러한 균형 관계를 동적 균형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사회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권력과 권력체들은 권력순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예로서, Toffler(1991)는 여러 하위체계에서의 권력의 동시적 이동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동요가 함해져서 그 하위체계들이 속한 보다 큰 체계의 수준에서 급격한 권력의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한 권력의 양적 또는 질적 변환은 기존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야기한다. 권력순환에서 한 권력과 다른 한 권력과의 관계변화는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권력의 순환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다. 권력의 형성이나 권력 순환을 야기하는 본질적 에너지는 생명력, 생존력 또는 생존본능과 같은 권

력주체에 내재된 힘이다.

권력순환에 의한 관계변화를 연쇄적으로 파악시키는 메카니즘은 파동이 전달되는 메카니즘과 유사하다. 파동은 매질과 파동을 야기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의해서 파고와 주기가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력파는 권력의 밀도는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파동에서 매질의 역할을 한다. 권력의 부피는 권력의 크기를 뜻한다. 인간의 행동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윤리, 도덕, 종교적 신념, 이념과 같은 가치부여활동과 관계되는 것 같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욕구와 관계되어 있다. 권력이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또한 그 권력의 부피가 클수록 이러한 권력의 규모는 보다 빨리 성장한다. 파동에서 공명현상, 간섭현상 및 중첩의 원리가 있듯이 권력파에도 이러한 원리가 작용한다. 예로서 경제활동의 경우 경기의 동조적 변동은 경제적 권력의 공명현상과 유사하다.

권력순환에서 기존의 권력은 새로운 권력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권력의 순환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권력은 새로운 기술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문화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제도일 수도 있다. 형성된 권력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권력행사에 참여한다. 권력관계에서 기존의 지배적 권력이 다른 권력을 지배할 경우 외형적으로는 가시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새롭게 형성된 권력이나 기존의 지배적 권력과는 다른 권력이 기존의 권력을 지배할 경우 변화가 발생한다. 권력관계에서 지배와 귀속관계가 변화할 경우 이는 새로운 생존질서의 창출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및 문화가 기존의 기술이나 제도 및 문화를 지배할 경우 이는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생존질서를 구축할 경우 이를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예로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지배할 경우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며 이는 기술혁신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존질서의 변화는 권력순환을 통해 야기되면 이러한 변화는 생존본능에 근거한 권력의 속성과 권력주체의 사회적 동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권력순환은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권력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변화는 인간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거나 또는 퇴행시킨다.

4. 국가생존을 위한 권력 순환적 접근

혁신(innovation)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출하여 인류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회적 프로세스에 관계된다. 따라서 혁신은 자연적 산출물(natural output)이 아니라 사회적 산출물(societal output)이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론과 원리를 탐구하고, 정책수립자들은 이것에 근거하여 혁신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여 국가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혁신을 위한 노력이 언제나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역사에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경우보다 퇴행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로서 구 소련의 경우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으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하여, 구 소련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기업이나 산업에서 기술 변화를 위한 노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투자에 대한 성공률은 예상치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들이나 경제학자들에 의해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나 전략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중요 경쟁국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어 국가경제는 장기적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사회의 개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개혁의 성과가 정책이 의도했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이러한 낮은 성공률은 이들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제도 및 이를 수행하는 능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아직도 개혁이나 혁신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는 패러다임(paradigm)이나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예로서 기술혁신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략적 패러다임이나 기업가적 패러다임(entrepreneur paradigm)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적 패러다임은 혁신을 기업가의 개성이나 성격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적 패러다임은 1980년대 이후에 널리 소개되고 있으나 이 접근이 개혁을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효과적으로 혁신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에서 긍정적인 생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혁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혁신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의 원천이므로 혁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변화 프로세스인 동시에 사회의 권력이다. 예로서 기술혁신은 인간의 행동이나 기업의 경쟁적 행동에 변화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혁신은 주어진 사회의 제도적 또는 문화적 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저자는 국가생존을 위한 접근으로서 권력순환적 접근을 적용한다.

권력순환적 접근은 다음을 진제로 한다. 우주 물리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생성은 대폭발(Big-Bang)에서부터 라고 믿고 있다. 과학자들은 무한히 작고 무한히 밀도가 높았던 이 대폭발이라는 시기를 거쳐 태양계와 은하계가 생성되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형성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들의 근원은 대폭발에 의한 에너지 즉 힘에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폭발에 의한 에너지는 에너지 변환을 통해 다양한 물질이나 물체로 변화되고 있다. 어떤 에너지는 태양계를 형성하였으며 또 다른 에너지는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다.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는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체의 탄생은 대폭발에 의한 에너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명체를 포함해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 즉 힘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예로서 질량을 가진 물체간에는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존재한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이러한 인력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자연계에서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상호 의존 또는 공생관계와 같은 특성의 관계를 통해 생존한다. 관계 간에 존재하는 것은 힘이다. 생명체를 포함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힘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권력, 즉 사회적 에너지는 질서를 창출하거나 유지한다. 우주 속에 흐르는 에너지 즉 힘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창출한다. 예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의 행성들 간에 작용하는 에너지와 각 행성들이 창출하는 힘은 태양계의 존재질서를 창출한다.

자연과학은 궁극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

의 존재질서나 생존질서 및 이러한 질서의 원천인 에너지 또는 힘을 탐구한다. 이에 비해서 사회과학은 사회의 생존질서와 이 질서의 원천인 사회적 에너지, 즉 권력을 탐구한다. 예로서 경제학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정치학은 정치적 질서를, 사회학은 사회적 생존질서를 연구한다. 권력 순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학문들이 개별적 또는 독립적으로 논의 될 때 이러한 논의에서 제시된 인간의 생존질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권력이 변화하면 이는 다른 권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로서 권력공간에서 경제적 권력의 변동은 경제적 권력체계뿐만 아니라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권력에 영향을 미치며,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권력변동은 경제적 권력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공간에서 각 권력시스템은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동적 상호관계에 있다. 한 권력체계 내부에서 조그마한 변동이 권력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수준에서 변동이 완만하게 또는 급작스럽게 다른 수준의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학, 정치학 또는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질 경

우 이러한 접근은 스스로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다 바람직한 생존질서의 창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문들이 통합되어 종합적으로 접근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력순환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과학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생존을 위한 권력순환적 접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핵심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권력순환적 접근은 필자의 저서인 “국가생존 전략”(2001, 두남)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권력순환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배려에 의해 국가생존전략을 권력순환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 시리즈 전반부에서는 권력순환적 접근에 관한 원리를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과 같은 분야에 혁신전략을 논의 함으로서 국가생존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표준**